石油의 世界史

—막강한 국제석유회사의 탄생—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20세기의 막이 오르자 그곳에는 모든 위대한 배우들이 등장하였다. 우리는 주요한 석유제품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특성을 알게 되었다. 그 용도는 점차 확대되고 거의 매일 새로운 「석유의 大食家」가 탄생하였다. 石油帝國을 형성하려고 하는 대회사가 많은 파란과 함께 설립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극을 공연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 드디어 機械의 세기는 개막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당시의 대공업국들은 제각기 세계지도의 재분배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였다. 현재도 강국이기는 하나 옛날보다는 못한 오스트리아·항가리王國은 갈리시아를 통치하였다. 프러시아에 의한 통일의 위업에 도취한 獨逸은 일찍부터 자국을 「밋텔 오이로파」(中部유럽)의 규모로 확대하려고 생각하였다. 專制國이며 政情이 불안한 러시아는 부패한 오스만帝國을 희생하여 영토확장의 야망을 품고 있었으며, 국위의 절정에 달한 용의주도한 英國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의 야망을 저지하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英國은 금세기초 제3共和政府의 프랑스와 공모하여 地中海주변의 「主權없는 토지」를 분배하였다. 이것은 강력한 식민지정책에 근거한 최후의 영토확장이었다. 약동하는 젊은 공화국 美國은 경제력이란 국민의 존중과 그 독립심이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여 놀라운 발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세계의 정치 점차 석유의 영향을 받게 되다

석유시대가 조용하게 막을 연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각 민족은 1차세계대전중에 처음으로 석유의 지배를 자각했다. 그리하여 그후에는 여러차례 恐慌에 직면하였다. 석유산업에 종적인 구조를 가져온 집중과 일관성은 1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25년전부터 천천히 사전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大戰된 15년간은 진실로 위대한 석유세력이 태동한 시대였다. 석유제품의 과잉, 즉 투매의 위기, 原料源 또는 판로의 조사·탐구, 세계적인 규모로 야기된 가격경쟁, 기타 수많은 어쩔 수 없는 이유등 요인들은 분해되는 기업을 조금씩 집중·통합으로 유도하였다.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추세는 불가피했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추세속에서 일반적인 경제원칙인 「집중의 법칙」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록펠러가 생각했던 트러스트는 그 자체로서는 독점을 목적으로 한 국내 정제업자와 판매업자의 조합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집중의 법칙」에 의하여 신속하게 자기의 야망을 달성하려고 생각하고 젊은 경쟁상대의 야망을 분쇄하였다. 1차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들 위대한 그룹은 점차 정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에 의하여 형성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 大石油會社의 효시인 스탠다드石油트러스트는 최초에는 수송기관을 지배함으로써 원료의 공급과 제품의 판매를 보증하는 정제·판매업자의 조합에 지나지 않았으나, 생산으로부터 시작한 로얄 더치 셸은 수년동안에 石油에 관한 모든 활동분야를 수용하는데 성공하였다.

있었다. 그리고 모든 주요참전국들은 그들을 이용하려고 들었다.

獨逸人에 의한 內燃機關의 발명과 그 완성에의 눈부신 공헌 및 산업발전과 海軍의 증강에 따라 이 나라는 석유의 확보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海軍이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英國에서도 석유의 공급은 역시 중대한 문제였다. 重油버너를 잘 이용하여 자동차와 항공기분야 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한 프랑스도 이들 인접국과 마찬가지로 本土에는 거의 석유자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 국가는 모든 석유공급을 대수출국인 美國, 갈리시아, 루마니아 및 러시아에 의존하였다.

1988년 이후의 美國의 지배적인 위치와 스탠다드石油가 유럽의 주요국가에서 획득한 獨占은 일부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타사의 반감을 사는 결과가 되었다. 로얄 더치 셸의 英蘭그룹은 東南아시아에서 록펠러의 회사와 이미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었으나, 20세기초엽 이후 그들의 관심은 유럽에 집중되었다. 갈리시아(오스트리아·항가리領)와 루마니아에서 차례로 석유가 발견되어 유럽諸國이 美國의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와 스칸디나비아 자본은 러시아에 근대산업을 일으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였다. 英國도 이미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다음으로 獨逸은 中部유럽에 주목하고 주로 루마니아를 겨냥하였으며, 다른 유럽諸國도 곧 이러한 움직임에 합류하였다. 유럽에서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온 스탠다드石油에 대항하기 위해 상호이익과 共感에 근거하여 일부 그룹이 형성되었으나, 후에 다시 재조직되었다. 이윽고 그들은 활동을 中東으로 확대하였다.

새로 만든 기계는 수송과 유통방법을 혁신했다. 오래동안 사람들은 주요제품인 등유를 양철통이나 나무통에 넣어 팔았다. 자동차와 비행기에 사용되는 휘발유도 오래동안 이 값비싸고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옛날 방식으로 판매되었다. 유조선·탱크트럭·로리車에 의한 벌크수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산원가와 경쟁요소는 근본적으로 변동되었다. 당시 도로옆에 주유소가 처음으로 출현하여 소비자에게 기름만을 판매하는 시대가 되었다.

석유산업의 최초단계인 탐사분야에 있어서도 로타리굴착방식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석유는 점차 빈번하게 발견되었으며, 굴착은 점점 深部에 달하게 되었다. 새로운 굴착기는 釘을 땅속에 처박아 넣는 것으로 만족했던 옛날의 굴착방식 대신에 錐를 땅속에서 돌려 구멍을 뚫었다. 여기에 또한 석유지질학이 서서히 등장하였다.

대석유회사의 효시인 스탠다드石油트러스트는 최초에는 수송기관을 지배함으로써 원료의 공급과 제품의 판매를 보증하는 정제·판매업자의 조합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생산으로부터 시작한 로얄 더치 셸은 수년 동안에 석유에 관한 모든 활동분야를 수용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경이적인 성공은 스탠다드의 지도자를 반성케 한 계기가 되었다. 「일관성」은 생산·수송·정제·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법칙이 되었다. 스탠다드가 로마나 아메리카라고 하는 최초의 종합일관회사를 루마니아에 설립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사실 다른 회사가 일관회사(一貫會社)를 만드는데 있어서 스탠다드에 선수를 쳤다. 獨逸은 獨逸은행과 디스콘드 게젤샤프트를 창립함으로써 그들의 석유정책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1904년에 獨逸은행은 스테아우아 루마니아를 매수하였다. 이 회사는 1896년에 항가리 자본과 공동으로 설립된 루마니아의 주요기업 가운데 하나였다. 獨逸은 이 적자회사로부터 큰 이윤을 내는 일관작업을 곧 실시하였다. 獨逸은행은 트러스트라기보다도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는 도이취 피트롤리움 악티엔 게젤샤프트를 설립하고 러시아의 그로즈누이大油田과 갈리시아

油田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獨逸人들은 또한 텍사스의 생산자들—스탠다드를 제외—과 석유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럽기업의 재단결을 장려하였다. 1906년 美國회사에 대항하기 위한조직이 브레멘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여기에는 獨逸, 러시아, 루마니아의 자본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자본도 참여하였다. 로스챠일드에 속해 있고 美國의 스탠다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러시아 스탠다드」는 獨逸人들의 주선으로 유럽石油連合에 참가하였다. 獨逸이 취한 이 정책은 英蘭그룹인 로얄 더치 셸과 英國, 프랑스정부로부터 호감과 환영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태도는 中東—이미 무한의 富가 추측되고 있었다—에서 獨逸이 놀랄만한 경쟁상대로 될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1907년에 합병된 英蘭그룹의 로얄 더치 셸은 루마니아와 러시아에 진출하였다. 그 수년전 그들은 러시아의 생산업자, 특히 노벨商會 및 로스챠일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로얄 더치 셸 그룹은 점차 러시아와 루마니아의 회사를 매수하여 子會社로 만들었다. 로스차일드에 속해 있던 일부 회사는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英國정부의 조언에 따라 윌리암 녹스 다시와 버마石油사이에 利權組合이 설립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英國정부가 개인의 노력을 인정, 확고한 결의를 갖고 그것을 전체적인 석유정책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 英國정부는 海軍 및 국내수요를 위한 석유공급을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확보하기 위해 항상 英國의 諸會社—이 중에는 셸, 후의 로얄 더치 셸그룹이 포함된다— 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해 주었다. 1909년에 창립된 앵글로 페스시안石油(후의 BP)에 英國海軍이 1913년 직접 자본참여를 함으로써 이 정책은 한층 명백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 그 자체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고 그 배후에서 자주 국민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다.

中東에서는 獨逸人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1904년에 獨逸은행에 의하여 설립된 바그다드鐵道會社는 콘스탄티노플의 回敎主로부터 모슬州와 바그다드州의 광업권을 획득하였다. 英國은 이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獨逸의 계획에 대하여 원조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하기도 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油田의 획득 및 석유가격을 둘러싸고 세계 도처에서 결쟁이 벌어지다

앵글로 페르시안石油에 이어 셸은 칼스트 글벤키안[1]이라는 아르메니아 태생의 특이한 인물의 주선으로 설립된 터키石油에서 獨逸은행과 손을 잡았다. 경쟁은 두개분야에서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즉 1910년 스탠다드측의 美國人과 로얄 더치 셸측의 英蘭人들 사이에서 끝없는 가격경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와 동시에 英國이 군림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따돌림을 당한데 격노한 美國人들은 다른 利權의 획득과 새로운 油田의 확보를 위해 쉬지않고 싸움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상업적인 문제는 거의 2차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석유를 지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이미 실증되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당시 美國에서는 록펠러나 스탠다드가 그들의 법칙을 억지로 강요하던 시대는 과거지사가 되어 버렸다. 많은 獨立會社가 새로운 油田의 발견과 함께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世間에서는 스탠다드石油로부터 분리·독립한 모든 회사 또는 모든 생산회사를「獨立系」로 불렀다. 그후 이들 獨立系중 일부는 원래의 스탠다드보다도 더 중요한 종합일관회사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의 社名으로서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보통 獨立系라는 것은 특히 試掘者(wildcatter), 만족할 줄 모르는 석유탐사자, 일단 건 돈을 언제라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투기꾼을 의미하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獨立系 석유회사들은 大會社보다도 美國석유산업의 권위와 至上權을 확립하는데 더 많은 공헌을 했던 것이다. 美國석유 가운데 70~80%를 발견하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고 최대의 매장량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장기간 大會社, 특히 스탠다드石油는 원유를 구입하는

註 : 1) 1869년 이스탄불에서 태어나 1955년 리스본에서 사망했음. 이란石油창립의 입안자. 中東의 석유를 말할 때 그의 위대한 존재를 빼놓을 수 없다.

데 만족하고 탐사와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았다. 후의 걸프가 텍사스의 스핀돌톱油田의 利權을 사 주어야겠다고 애원하다시피 록펠러에게 제의했을 때 이 거물은 아주 오만하게 이 제의를 거절하였다. 이 록펠러의 거절은 은행과 철강의 대재벌인 메론家를 석유산업에 끌어들여 세계 최대 석유회사의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스탠다드石油에 상대하기 힘든 경쟁상대를 탄생케 한 결과가 되었다.

얼마후에 텍사스石油는 스핀돌톱油田의 장래를 심사숙고하게 된 텍사스의 정치가와 재벌그룹에 의하여 창립되었다. 同社는 1911년 이후 스탠다드石油와 경쟁하게 되었다.

美國의 회사들은 해외자원에 비상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스탠다드는 이미 루마니아에 진출하고 있었으며, 그후 당시 오스만帝國의 명목상 지배하에 있던 中東에서 利權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12년에는 본격적인 운동이 개시되었다. 우선 열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사실은 로얄 더치 셸의 사장 디터링, 여기에 英國, 루마니아, 러시아·로스차일드의 거대한 利益을 대표하는 레인, 극단적으로 혐오감을 갖고 있는 록펠러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人들을 단결시켜야 한다고 不撓不屈의노력을 경주하고 있던 아르메니아人 칼스트 굴벤키안등 세 사람간에 石油利權組合이 결성되었던 것이다. 같은 해 로얄 더치 셸은 러시아에서 석유사업에 종사하는 로스차일드그룹에 계열회사인 브니트 그룹과 마즈트회사를 흡수하였다.

1914년 獨逸이 油田에 도달하다

1913년 세계 석유의 주요 생산 및 판매분야는極東 또는 유럽을 포함하여 고찰해 볼 때, 3대그룹 즉 美國의 록펠러그룹, 디터딩의 英蘭그룹, 獨逸은행의 獨逸그룹에 의하여 점유되었다. 그러나 석유세력의 관심의 초점은 이미 메소포타미아로 집중되었다.

中近東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벌써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붕괴한 오스만帝國의 나머지 부분을 손에 넣는 것은 누구일까. 英國은 특히 적극적이고도 용의주도했다. 英國은 1세기를 소비하면서 페르샤灣(아라비아, 이란, 메소포타미아)의 전역에 걸친 지배권을 장악하고 本國과 印度를 연결하는 이 주요한 통상로 주변의 평화와 통상을 확립하였다. 英國人들은 인내와 不撓不屈의 정신을 갖고 있었으며, 필연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 초엽 이들 전지역에서 英國의 특권적 지위를 확보하는 많은 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地方首長으로부터는 점차 불신과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조약이란 페르샤만 연안국의 君主들과, 또는 그후 아라비아王과 체결된 배타적 조약을 말한다. 또한 1907년의 英露條約은 이란에서 兩國의 세력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英國은 이 나라의 南部 전역을 손에 넣게 되었다.

따라서 英國정부는 獨逸에 의한 베르린에서 바그다드까지의 바그다드鐵道계획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였다. 獨逸銀行은 유럽의 중심에서 바그다드를 경유하여 페르샤灣연안의 쿠웨이트에 이르는 철도부설을 주장하였으며, 英國은 배타적 조약을 이유로 전력을 다해 이 계획을 방해하였다.

鐵道沿線의 반경 20킬로미터에 미치는 광업개발권 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한 獨逸은행은 콘스탄티노플의 回敎主로부터 모슬州와 바그다드州의 利權을 강제로 획득하였다. 이들 지역은 석유가 滲出함으로써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英國은 곧 獨逸과 화해·협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후 英國外務省에서 공식적으로 모슬州의 석유개발에 대하여 兩國간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앵그로 페르시안石油가 개발을 하게 되었으므로 英國은 獨逸과의 공동사업에서 우위에 서게 되었다. 그후 오래동안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셸이 갓설립된 터키石油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英國은 獨逸의 팽창주의에 불안을 느껴 묵시적 협력에서 점차 명백한 적대쪽으로 돌아섰다. 바그다드鐵道공사는 매우 급속히 진전되어 獨逸은행은 지질학자와 탐사대를 메소포타미아에 파견했다. 1914년에 鐵道가 모슬에 이르렀을 때 세계대전이 발발, 英國은 자국국민의 안전과 利權을 보호하기 위해 급히 페르샤南部와 메소포타미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다. 1916년 英國과 프랑스는 쌕스 피크비밀협정을 체결하여, 오스만帝國의 戰利品에 대하여 兩國간에 배분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협정은 혁명후 러시아에 의하여 공표되었다. 獨逸의 持分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열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유명한 모

슬州(이라크)의 개발권은 연합국들간에 배분되었던 것이다.

세계대전은 석유소비에 매우 중대한 자극을 주었다. 內燃機關은 수년 사이에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비행기는 전투병기가 되었으며, 자동차와 트럭은 군대에서 없어서는 안될 보조병기가 되었다. 모든 선박은 연료를 重油로 전환하였으며, 석탄의 연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증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위성을 얻게 되었다. 휘발유와 석유제품의 보급은 軍參謀本部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였다. 마르누의 택시[2]의 유명한 에피소드는 신속한 수송덕분에 전투에서 수시간만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잘 말해준다. 연합군은 다행히—이론상으로도 당연하지만—美國에 의존하여, 그 광대한 석유매장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석유 한방울은 피 한방울에 해당한다

그러나 1917년말경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휘발유의 저장량은 정말로 최악의 상태로 돌입하였다. 나머지 연료는 3일분뿐이었다. 그런데 1917년 12월 15일 프랑스의 클레망소수상은 美國의 윌슨대통령앞으로 위협적인 전보를 타전했다. 그 전보에서 그는 석유회사, 그중에서도 스탠다드에 대하여 同社가 확보하고 있는 모든 석유를 유럽으로 수송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윌슨대통령에게요청하였다. 이때 클레망소수상으로부터 윌슨대통령앞으로 보내진, 유명하지만 眞僞는 명확하지 않은 『석유 한 방울은 피 한방울과 같다』라고 한 말이 傳說로서 남아 있다.

그리하여 스탠다드와 로얄 더치 셸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프랑스군대에 대량의 석유를 공급하였다. 이들 2개 회사는 프랑스의 원로의원이며 석유정책의 위대한 입안자였던 앙리 베란지에가 외친 다음과 같은 말로 보답을 받았다. 『우리들은 강대한 두개의 트러스트를 승리의 戰車에 연결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위대한 카존卿은 휴전 수일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합군은 석유의 파도를 타고 승리를 향하여 진군하였다.』. 獨逸측은 석유부족으로 전쟁에서 패배했다. 따라서 석유가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이 전쟁은 석유에 의하여 승리가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漫 評□

註 : 2) 제1차대전때 마르누江을 사이에 두고 獨逸軍과 프랑스軍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獨逸軍이 대공세로 전환하였을 때 프랑스측에서는 택시를 총동원하여 증원부대를 前線에 수송하였다. 이 때문에 戰場은 급변, 프랑스軍이 승리를 거두는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대전에 참가한 프랑스人들뿐만 아니라, 유럽人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